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임 영 언** · 김 태 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目 次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Ⅲ.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Ⅳ.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 및 기여도 분석
Ⅴ. 민단계와 총련계 민족학교의 사례분석
Ⅵ. 결론

Ⅰ. 문제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재일코리안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정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고 그들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민족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재일코리안들의 민족학교 설립에 대한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 당시 일본에 남아있던 재일코리안들은 "돈이 있는 자는 돈을,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본 전국적으로 민족교육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재일코리안들이 일치단결하여 일본 전국적으로 세운 민족학교는 1946년 9월에 일본 전국 525개교, 학생수도 약 4만 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와 미군정(GHQ)은 재일코리안들의 민족교육이 전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www.kci.go.kr

일본정부의 치안유지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는 마침내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민족학교 폐쇄령'을 전국적으로 공포하고 대대적인 경찰조직을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민족학교가 일본학교로 강제 통합되거나 폐쇄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재일코리안들은 '한신교육투쟁'으로 맞서 싸웠다.

일본정부의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도 재일코리안들은 후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1955년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학교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7년 이후 북한 김일성이 민족학교에 대대적으로 교육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민족학교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족학교는 1966년에는 142개교, 학생수도 약 3만 4,0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당국과 일본의 경제불황에 따른 재일코리안의 재정악화로 교육지원금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많은 학교들이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핵개발 의혹,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정부의 재정적 탄압도 강화되어 민족학교의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정부는 민족학교가 북한(총련)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인 납치사건, 군사적 도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민족학교 재학생들에게 대한 재정적 차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는 이러한 일본 내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2012년 시점에서 102개교 약 8,500명으로 감소했으며 운영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민족학교외 민족교육기관은 재일동포나 한국인이 많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족학교 외의 민족교육기관은 점차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약 70년 동안 일본에서 재일코리안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에 의한 민족성, 전통문화 등 민족정체성의 세대 간 계승에 있어서 '민족교육'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민족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민족학교의 위기를 방치할 경우 민족교육의 존폐와 재일코리안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코리안 사회의 중요한 민족자산인 민족학교와 민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향후 중요한 재외동포정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총련과 민단이라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떠나 민족학교 학생들의 민족학습권 옹호,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민족교육모델 정립과 민족

www.kci.go.kr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코리안 사회의 민족교육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민족교육에 관한 교육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민족교육방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에 대하여 나카지마 도모코(中島智子, 2012)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일본에 존재하는 총련계 조선학교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 연구자들도 조선학교 관계자나 졸업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학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일단 학교의 수적인 측면에서 2012년 기준으로 조선학교가 98개교, 한국학교가 4개교로 이에 따라 당연히 조선학교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1)]

이들 재일코리안 조선학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박삼석(1997, 2008, 2011, 2012), 양영후(1980, 1986), 김덕룡(2004), 송기찬(2012) 등을 들 수 있다.[2)] 또한 국내에서의 민족교육에 대한 연구는 김인덕(2006, 2008, 2012[3)])이 한신교육투쟁과 민족학교의 설립과정에 관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이들 기존연구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조선학교의 역사적 배경, 각종학교로서의 당면과제, 교과과정(커리큘럼)이나 학교생활상의 문제, 조선학교 교육의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4)]

본 연구와 관련된 재일코리안 민족교육모델에 관한 연구는 김정숙외(2008)의 연구가 있다.[5)] 이 연구는 민족교육기관 실태분석과 민족교육관을 통해 민

1)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에 대한 상세한 숫자는 中島智子(2012) 「コリア系学校の状況と調査の概略」『コリア系学校』 p.75참조.
2)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족학교는 한국학교와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현지조사 사정상 설문조사는 한국학교, 인터뷰조사는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민족학교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3) 김인덕(2012)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 『조선역사교재초안』과 『어린이 국사』를 통해」, 『역사교육연구회』 제121집, pp.165-189참조.
4) 김인덕(2012)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東京朝鮮中學校의 설립 : 『도쿄조선중고급학교10년사』를 중심으로」, 『崇實史學會』 제28집, pp.251-282참조.
5) 김정숙외(2008)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북코리아, pp.123-124참조.

www.kci.go.kr

족교육 모델을 도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였지만 대안적 모델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역사적 발생적 요인과 1945년 이후 구축된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의 이해 없이는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민족교육의 메커니즘(mechanism) 또한 제대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송기찬(2012)의 조선학교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연구결과에서 글로벌 다문화시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은 기존연구성과들이 주장하는 본질주의도 아니고 탈민족(탈구축)주의도 아닌 그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 민족학교 출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을 초월하여 글로벌시대 조선학교의 실태와 지향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들 조선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족교육의 기제(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에 대한 기존연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선학교에 대한 자료분석은 기존연구와 인터뷰조사에 의존하고 한국학교에 대한 분석자료는 현지에서 수집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성과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족교육의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전체의 상과 글로벌시대 현실적인 대안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Ⅲ.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일본에서 민족학교가 민족교육기관으로써 재일코리안들에게 우리말과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온 역할은 누구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시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30만 명에 달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와 같이 해외 거주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민족교육기관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재외동포 2세들의 민족정체성이 급격히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더욱 증명되고 있다.

재일코리안들은 대부분이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도일한 ‘조선인’과 그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현재 ‘재일코리안 6세’까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성에 기인하여 재일코리안들은 매년 1만 명 정도가 일본 국적으로

www.kci.go.kr

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코리안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어 사용금지, 광복 이후 일본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 제도적 '조선인' 차별과 탄압 등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로의 '동화(assimilation)'을 선택하기 보다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일코리안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민족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일동포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민족교육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한국학교 대상의 민족교육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점에 착안하였다. 첫째, 일본현지 사정을 감안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다양성 및 세분화에 따라 민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일코리안 사회의 단합과 민족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논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먼저 한국학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에 대해여 살펴보겠다. 이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는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성별분포, 연령별분포,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국적유지 여부, 본인의 국적과 세대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질문항목		빈도(%)	질문항목		빈도(%)
성별	남성	403(47.2)	응답자의 세대구성	1세(한반도 출생)	198(23.2)
	여성	450(52.8)		1.5세(부모 따라 이주)	178(20.8)
가족구성	2명	17(2.0)		2세(부모한반도출생)	159(18.6)
	3명	110(12.9)		3세(조부모한반도출생)	148(17.3)
	4명	385(45.1)		기타	172(20.1)
	5명	230(26.9)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8(4.7)
	기타	112(13.1)		고등학교 졸업	47(27.6)
응답자의 국적	한국적	584(68.4)		대학교 졸업	87(51.2)
	조선적	2(0.2)		대학원 졸업	28(16.5)
	일본적	187(21.9)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2(1.1)
	기타	81(9.5)		고등학교 졸업	64(35.8)
아버지 국적	한국적	672(78.8)		대학교 졸업	95(53.1)
				대학원 졸업	18(10.1)
	조선적	0(0.0)	어머니 국적	한국적	594(71.3)
	일본적	173(20.3)		조선적	3(0.4)
	기타	8(0.9)		일본적	227(27.3)
				기타	9(1.1)

www.kci.go.kr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7.2%, 여성이 52.8%로 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4명 가족기준이 4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명 가족이 26.9%, 3명이 12.9%,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코리안의 경우 가족구성이 일본인의 가족구성 형태와 유사하게 4명 가족의 비율이 높았지만 특히 5명의 가족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자녀가 한 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재일코리안 가족의 특성상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가 많다는 것을 연결과에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 학생들의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학력은 전체 67.7%, 어머니학력도 63.2%가 대학졸업이상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졸업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6)]

전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학교의 응답자 가운데 동경한국학교의 응답자비율이 약 50%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동경한국학교는 1980년대 이후 도일한 뉴커머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각종학교'로서 올드커머들이 다니는 일조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조사결과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

다음은 한국학교 학생들의 부모의 국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의 국적을 질문한 결과, 한국국적 비율이 아버지가 78.8%, 어머니가 71.3%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적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뉴커머 비율이 높은 점과 오사카 지역의 경우 올드커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 분류에서 아버지의 경우 20.3%, 어머니의 경우 27.3% 정도가 일본 국적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기타 국적은 한국적 및 조선적 이외의 국적소유자로 추정된다.

설문응답자의 국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 일본적이 21.9%였다. 국적에 대해서는 일본적 비율은 부모나 자녀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부모와 비교하면 자녀의 일본적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들이 아직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18세 이전의 학생들이 많아 국적선택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6) 이 연구에서 응답자 수와 교육수준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개인정보 상을 이유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재일코리안 민족학교는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존재하고 일조교와 각종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학교의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학교를 '일조교(一条校)', 기타 학교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각종학교'로 취급하고 있다.

www.kci.go.kr

다.

본인의 세대구성에 대해서는 재일코리안 세대구분에 대하여 제1세대는 자신이 한반도 출생, 1.5세대는 부모를 따라 이주, 2세대는 부모가 한반도 출생, 3세대는 조부모가 한반도 출생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세대구분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한반도 출생이라는 1세의 비율이 2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경한국학교의 특성상 뉴커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이주한 비율이 20.8%로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부모를 따라 도일한 경우는 약 44%에 달했다. 따라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일코리안 1세나 1.5세들로 추정되며 여전히 한국인 모국과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Ⅳ.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 및 기여도 분석

1. 한국학교 전반에 관한 빈도분석

다음은 재일코리안 한국학교 전반에 대한 고찰은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전에 다닌 학교, 민족학교 선택 계기, 민족학교 선택 이유, 한국어 수준, 가장 재미있는 과목, 가장 싫어하는 과목, 민족학교의 장단점, 민족학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서 민족학교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민족학교 실태나 전망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한국학교 전반에 관한 조사결과

질문항목		빈도(%)	질문항목		빈도(%)
현재 재학학교	초급학교	123(14.4)	한국학교 선택 이유	우리말 배우러	343(40.2)
	중급학교	494(58.0)		부모님 때문에	250(39.3)
	고급학교	205(24.1)		집에서 근거리	40(4.7)
	기타	30(3.5)		기타	221(25.9)
이전에 다닌 학교	한국계 민족학교	337(39.5)	한국어 수준	아주 잘 한다.	253(29.9)
	조선학교	20(2.3)		잘 하는 편이다.	368(43.4)
	일본학교	314(36.8)		못한다.	188(22.2)

www.kci.go.kr

한국학교 선택계기	기타	183(21.4)	한 국 학 교 장점	기타	38(4.5)
	부모님의 권유	509(62.5)		한국어 사용.	570(66.7)
	친구의 권유	10(1.2)		선생님이 좋다	58(6.8)
	나의 선택	208(25.6)		수업이 재미있다.	98(11.5)
	기타	87(10.7)		기타	128(15.0)
한국학교 필요 이유	민족의식 교육	215(25.2)	한 국 학 교 단점	통학이 불편	265(31.1)
	민족문화 교육	201(23.6)		시설노후	222(26.1)
	한국어 교육	344(40.3)		소수 학생	206(24.2)
	통일교육	45(5.3)		기타	159(18.7)
	기타	48(5.6)			

먼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852명 중 초급학교 14.4%, 중급학교 58%, 고급학교 24.1%로 중급학교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설문응답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중급학교 이상의 학생이 80%를 초과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급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14.4%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과정에서 전체적인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전에 다닌 학교에 대하여 한국계 민족학교가 39.5%, 조선학교가 2.3%, 일본학교가 36.8%로 일본학교에 다니다 한국학교로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선학교에 다니다 한국학교로 입학한 경우도 2.3%정도였다.

조선학교 교장을 상대로 인터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적 학생들의 조선학교 입학생이 70%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민단이나 뉴커머들이 대거 조선학교에 입학했다고 추측하기는 어렵고 조선적을 가진 총련계 재일코리안들의 한국국적 선택에 따라 자녀들도 한국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민족학교를 선택한 계기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족학교의 선택 이유에 대하여 ‘부모님의 권유’가 6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25.6%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학교나 민족학급, 한글학교를 선택한 계기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특히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부모를 따라 이주하여 한국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사카의 금강학원이나 백두학원의 경우 일조교로 다른 일반 일본학교도 많은데 굳이 한국계 일조교로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는 부모들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하여 어떻게

www.kci.go.kr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사결과를 보면 '아주 잘 한다'가 29.9%, '잘 하는 편이다'가 43.4%, '못 한다'가 22.2%로 나타났다.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도일한 1세나 1.5세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한국어 실력도 약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먼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장점에 대하여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업이 재미있다'가 11.5%, '선생님이 좋다'가 6.8%순이었다. 한국학교 학생들은 오사카지역의 경우 올드커머 자녀들이 많아 상황이 전혀 다르겠지만 동경지역의 경우 한국에서 최근 도일한 뉴커머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이 매우 부족하고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학교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학교의 단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먼저 '통학 불편'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 노후'가 26.1%, '학생이 적다'가 24.2%였다. 대부분의 한국학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지역, 역주변이나 번화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또한 현대식 시설보다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설비의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한국학교의 특징은 1980년대 이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도일한 뉴커머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오사카지역의 경우 1945년 해방 전후 올드커머들이 정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학교 학생들은 민족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한국학교의 존재 이유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민족의식 교육이 25.2%, 민족문화 교육이 23.6%였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하면서도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개 서투른 일본어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한국어로 수업진행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한국학교 민족교육 신뢰도 및 평균차이분석

다음은 한국학교의 실태에 대한 질문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결측치가 없는 케이스들만 분석한 결과 855개 케이스 중 19개 항목이 제외되어 836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한국학교 실태항목에 대한 신

www.kci.go.kr

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가 0.693으로 나타났다. 보통 신뢰도가 0.6이상이면 유효하기 때문에 0.69이상이므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계수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3〉는 한국학교 실태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학교 실태에 관한 총통계량 분석을 보면 질문항목 중에서 3번, 5번, 7번, 12번 항목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내용들은 주로 민족교육에 대한 흥미, 민족교육기관 시설노후,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민족교육에 대한 만족 등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학교의 실태에 대하여 전체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교의 실태에 대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한국학교의 실태 및 현황은 조사대상자들에게 5점 리커트척도의 설문지로 13개 항목을 구성하여 측정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방법은 민족교육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는 "1=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그렇게 생각한다. 5=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 3〉 한국학교 실태 및 현황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한국학교 실태 및 현황	M	SD	N
1. 학교 선생님들이 민족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2.64	.96	854
2. 학교 선생님들이 민족교육의 내용을 잘못 가르친다.	2.56	.97	853
3.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내용을 배우는 데 흥미가 없다.	2.98	1.00	853
4. 우리 부모님들은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2.52	1.07	854
5. 민족교육기관의 시설이 너무 낡고 오래되었다.	**3.00**	1.12	853
6. 민족교육에 관한 책이나 다양한 수업자료가 부족하다.	2.79	1.03	851
7. 한국정부는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2.96	1.02	853
8. 민족학교 학생들은 모국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3.20**	1.01	854
9. 민족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이 긍정적이다.	**3.25**	.91	851
10. '나는 누구인가?' 라는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2.52	1.59	852
11. 모국과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	2.65	1.07	851
12. 현재 민족학교 교육내용에 만족하고 있다.	**3.00**	.98	852
13. 한민족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3.31**	1.19	852

조사결과를 보면 "한민족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서 3.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민족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이 긍정적이다."가 3.25, "민족학교 학생들은 모국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가 3.20의 순이었다. 또한 한국학교의 교육과 실태에 대하여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내용을 배우는 데 흥미가 없다."와 "한국정부는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

www.kci.go.kr

족하다."는 항목의 평균값이 각각 2.98, 2.96이었다.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모국의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학교의 실태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에서는 한국학교의 교육내용과 한국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대한 항목의 평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응답자들이 민족교육 내용의 개발과 재일코리안의 입장에서 한국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국학교 교육전망에 관한 신뢰도 및 평균차이분석

전술한 바와 한국학교 전망에 관한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값을 신뢰도 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알파값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질문항목들에 대한 응답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곧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 값이 0.792(79.2%)로 매우 높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 검사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값을 측정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때문에 결측치가 없는 케이스들로만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전체 케이스 845개중 결측치가 많은 20개 항목을 제외하고 유효케이스 825개로 통계 처리하였다. 왜냐하면 질문항목들 중에서 일부 질문항목들을 제외시켰을 때 전체 신뢰도 값이 상당히 증가하는 항목이 존재하면 그런 항목들은 신뢰성이 낮은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들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학교의 전망 및 기여도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에게 14개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질문항목은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한국학교 전망 및 기여도 평균차이분석

한국학교 전망 및 기여도	M	SD	N
1. 한국(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3.14	1.03	838
2. 재일동포 간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한다.	**3.29**	.90	835
3. 재일동포 세대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3.31**	.91	834
4. 민족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목표나 이념을 가지고 있다.	3.22	.90	835

www.kci.go.kr

5. 학교 관련 지역사회 및 동포단체들이 적극 지원한다.	3.13	.93	836
6. 한국진출이나 외국과의 관계를 높여준다.	**3.40**	.98	834
7. 다문화공생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3.31**	.93	834
8. 재일동포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시킨다.	3.23	.88	830
9. 일본에서 민족의 뿌리(언어, 역사, 문화, 예술 등)를 알기 위한 민족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52**	1.00	831
10. 현재 민족교육기관의 주변 환경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다.	2.89	.93	835
11. 주변에서 민족교육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64	.96	834
12. 내가 민족학교에 다니는 것은 부모님이 원해서이다.	2.85	1.14	834
13. 내 친구들이 민족학교에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2.35	1.14	835
14. 향후 한국에 유학가거나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3.21	1.29	831

한국학교 전망 및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값이 높은 항목을 보면 “일본에서 민족의 뿌리(언어, 역사, 문화, 예술 등)를 알기 위한 민족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가 평균 3.5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진출이나 외국과의 관계를 높여준다.”가 3.40으로 높았다. 그밖에도 “재일동포 세대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와 “다문화공생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가 각각 3.31로 높았다. 한국학교가 “재일동포 간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항목도 평균값이 3.29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학교 전망 및 기여도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학교는 한민족의 뿌리와 민족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한국학교가 한국이 외국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외국과의 관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한국학교는 재일동포 세대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넷째, 한국학교는 다문화공생 사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섯째, 한국학교는 재일코리안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4. 한국학교 교육실태에 관한 요인분석

이번에는 한국학교 교육실태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원래 요인분석은 많은 수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몇 개의 요인으로 함축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시도하는 분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뢰도 분석의 결과에 의해 질문항목 10번, 13번 항목은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1개 항목의 변수를 상호독립적인 몇 가지 요인으로 축소하였다.

www.kci.go.kr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표준형성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척도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값이다. KMO 계수값이 0.6이상이면 요인분석의 변수로서 적당하고 통계적인 확률도 유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총분산 결과를 보면 주축요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인 것들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대략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 함축되었다.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40.3%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학교 민족교육실태 요인분석

질문항목	요인분석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민족교육실태현상2	**.779**	.204	.068
민족교육실태현상1	**.749**	.199	.100
민족교육실태현상4	**.578**	.151	.078
민족교육실태현상3	**.531**	.273	.073
민족교육실태현상11	.189	.110	-.058
민족교육실태현상5	.163	**.628**	-.009
민족교육실태현상6	.222	**.597**	-.016
민족교육실태현상7	.352	**.516**	-.042
민족교육실태현상9	-.037	-.043	**.776**
민족교육실태현상8	.056	-.074	**.666**
민족교육실태현상12	.178	.176	.237

주) 요인추출 방법: 주축 요인추출.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상기에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학교 실태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1요인은 한국학교 주체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한국학교의 민족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심으로 요약된다. 민족학교의 선생이나 학부모, 학생들은 민족학교의 실태에 대하여 민족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흥미, 부모님의 관심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요인은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로 한국학교 실태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노후화, 다양한 수업자료부족, 정부의 민족교육 관심부족 등으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제3요인은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과 한국학교 학생들의 모국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들 스스로도 모국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ww.kci.go.kr

Ⅴ. 민단계와 총련계 민족학교의 사례분석

다음은 일본 현지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에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실태, 학교의 지향목표, 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학교와 조선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 6〉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구체적 교육내용과 목표를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국제사회에서 능력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과 다문화공생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학교는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 소양,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조선사람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민족학교의 교육내용과 목표

구분	교육내용 및 목표
한국학교[8]	재일한국인의 자각과 긍지, 국제사회 적극적인 참가와 적응능력 배양, 사회에 봉사하는 인간 육성, 개성과 창조성 계발, 글로벌 리더 양성, 자기존재에 대한 긍지, 자기연마, 국제인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공생하는 인재 양성
조선학교[9]	동포 자녀에게 조선사람으로서 민족자주의식, 민족적 소양 동포사회건설과 나라의 통일과 부흥발전에 이바지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참된 조선사람, 유능한 인재

1. 동경한국학교[10]

1) 한국학교의 실태

“전술한 바와 같이 동경한국학교는 각종학교에 속한다. 그러나 간사이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는 일조교에 해당된다. 동경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수능시험 등에 원활히 대비할 수 있다. 동경의 경우 뉴커머와 주재원의 자녀가 많아 일시 체류자의 비

8) 桜井縁 · 棚田洋平(2013)「日本の韓国学校-韓国系一条校3校の事例より」『往還する人々の教育戦略』明石書店 `pp.128-129참고로 필자 작성.

9) 조선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2005) 『총련-총련결성 50돐에 즈음하여』 조선신보사, pp.47-48참조하여 작성.

10) 이 자료의 인터뷰는 2013년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추병국 교장선생님과 서만호 진로부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동경한국학교 교장실에서 이루어졌음.

www.kci.go.kr

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대학교도 한국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드커머의 경우 일본에 정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학교에 진학하기보다는 일본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파견직이 많다. 학생들의 입시 성적도 매우 좋은 편이다. 학생들의 입시성적이 좋아지고 나서 학생모집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의 대학입학사정이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한국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지역이 하나의 대학입시 시장이 되었다. 제대로 된 한국학교는 동경뿐이니까 한국대학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학생의 경우 서류위조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지만, 일본출신 학생의 경우 서류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한국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입시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재원들도 가능하면 한국학교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2) 한국학교의 목표-글로벌 인재양성

"한국학교에 다니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내용의 5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차츰 그 영어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중등부는 과학, 수학 등 일부 과목은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다양한 특색을 가진 학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학교에는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모든 종류의 특징들이 이 학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능력과 취향에 맞게 철저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많다. 학생들 수업능력에 따라 능력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과목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에 가끔 시험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한다고 항의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더 어렵게 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각각의 교육방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학교의 학습목표는 다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다고 보면 된다."

3) 교육의 방향성

"한국에서는 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머리에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겪어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에서도 향후 조선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특별히 총련학교와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아무래도 현재 정치적인

www.kci.go.kr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섣불리 교류를 했다가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애써 교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보면 민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한국학교가 일부러 민족교육을 내세워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민족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학교 과정에서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민족교육'이라 생각한다."

2. 도쿄조선중고급학교[11)]

1)조선학교의 실태

"본래 조선학교는 중급부가 없어서 1945년 해방 이후 새로 신설했다. 당시에는 기숙사도 있었는데 학교 형편상 없앴다. 현재 학교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이다. 연간 1년에 4천만 엔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학부형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 또한 학생 1인당 1천 엔 정도를 도쿄도(東京都)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도쿄도의 학교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일본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학생 가정에 1인당 5천 엔에서 7천 엔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현재 절반 정도로 줄었다. 다른 지역인 에도가와구(江戶川區)의 경우, 전에는 1년에 1만 엔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현재는 절반으로 지원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일본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재일동포 기업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학생수도 1980년대에는 이 학교에만 3,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현재 중·고급학교 학생수를 모두 합쳐봐야 600명도 채 안 된다. 1946년부터 중급부가 새로 신설되었다. 현재 조선학교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동경주변 사이타마 현, 치바 현, 군마 현 출신 중급부 학생들을 합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급부는 도쿄 제3학교가 다른 곳에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현재 도쿄 제1, 제4, 제5(墨田區)학교에는 중급부가 아직도 남아 있다."

2)조선학교의 목표

"재일동포들이 향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정주화 의식도 점차 강해지고,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일본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주쿠의 동경한국학교는 한국에 있는 학교와도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학교는 한국에서 오는 선생님

11) 인터뷰 자료는 2013년 7월 18일 오전 11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실에서 신길웅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

www.kci.go.kr

과 학생들이 90%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 가르치고, 한국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진정한 민족교육으로 보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50%-60% 이상은 한국국적이고, 교사들도 대부분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출신이 많다. 이 학교 학생들 중 40% 정도가 상급학교를 조선대학으로 진학한다. 나머지는 일본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조선대학은 일꾼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학한 학생의 40% 정도는 졸업 후 총련계 민족기관이나 총련 단체의 일꾼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말과 글, 역사, 지리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조선학교는 해방 후 60여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이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만약 일본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조선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기 힘들고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교육의 방향성

"최근 일본 우익단체들이 한국인이나 한국에 혐한 데모(혐한류)를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토에서는 조선 초급학교 앞에서 우익들이 반한데모를 하기도 했다. 이유는 조선학교 운동장이 비좁아 학교 근처 공원에서 축구를 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일본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한창 이슈화되었을 때 조선학생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본인들도 있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조선인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선학교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조선학교 고급부의 경우 일본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원에서 배제시켰다. 최근 조선학교가 일본 우익단체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도 "납치와 관련된 학교다. 수업에서 그런 나쁜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 라는 것을 구실로 삼고 있다.

현재 조선학교의 지원은 일본의 정치정세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이럴수록 한국과 조선에 대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재일코리안들 중에는 일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선학교에 보내면 차별받기 쉽다는 이유로 일본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으로 동화되어 가는 조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조선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www.kci.go.kr

〈표 7〉 민단계와 총련계 민족학교의 차이[12)]

구분	민단계 한국학교	총련계 조선학교
교육의 형태	도쿄한국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일조교로 일본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이 각종학교로 취급되어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학교실태	도쿄한국학교는 한국진출기업의 주재원과 뉴커머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열이 높고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목표 오사카와 교토 한국학교의 경우 일조교로서 정체성이 불분명	일본정부의 차별과 억압정책으로 학교 쇠퇴, 조선학교 70-80%가 한국국적 사람들로 대책이 필수적임, 현재 학생모집은 민족단체나 개인네트워크에 의한 소개에 의존하고 있음, 도쿄 3-4개 학교가 지진에 대비 학부모 기부와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재건축 중에 있음.
교육목표	한국정부 지원과 일본정부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재일조선인 상공인들의 기부로 조선인 양성을 위한 민족교육
향후 지향성	글로벌시대 글로벌 교육으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런 민족교육 지향	일본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민족교육지향

Ⅵ.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코리안 민족학교 중에서도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인 민족교육방향 모델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점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민족교육에 관한 교육현황 및 교육실태 등에 대하여 한국학교에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본에 있는 한국학교의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목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도쿄에 소재한 동경한국학교 425부, 오사카지역에 위치한 금강학원 216부, 백두학원 204부, 교토지역의 코리아 국제학원 6부 등 총 851부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의 실태분석 결과 한국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공부함으로서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모국의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2) 2013년 7월 현지에서 수집한 인터뷰자료와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작성.

www.kci.go.kr

한국학교 전망 및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학교는 한민족의 뿌리와 민족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기여, 한국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 재일동포 세대 간의 연대강화 및 의사소통 가능성, 일본 다문화공생 사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재일코리안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한국학교 선생이나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민족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흥미, 학부모의 관심 부족,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등으로 도출되었다. 한국학교 실태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노후화, 다양한 수업자료 부족, 정부의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제도적 지원 미비,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학생들의 모국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점 등으로 분류되었다.

현지 사례조사를 통해본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조선학교는 각종학교로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한국학교는 일조교와 각종학교로 분리되어 운영해 왔다. 그 이유는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모집학생의 대상, 지향목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족교육 이론이나 개념은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여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교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학교에서는 '민족'이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은 한국학교에서는 글로벌 인재교육 가운데 우리말 교육을 강조하였고 조선학교에서는 최후까지 지켜내야 하는 이념으로서 '민족'이라는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셋째, 글로벌시대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상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현지조사결과, 한국학교는 오사카의 경우 일본 국적의 학생들이 소수 재적하고 있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재학생 70-80%가 한국적 학생들이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총련계 무국적자들의 한국국적 선택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적대적인 기본방침이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학교의 전망도에 미치는 요인들은=a*민족교육 인적부분(선생님, 학생, 부모님)+b*기관의 시설 및 자료, 관심+c*의식(모국에 대한 의식, 한국인들의 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교의 개

www.kci.go.kr

선점이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교의 실태 및 현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한국학교의 민족교육을 구성하는 인적구성(선생님, 학부모, 학생)이었으며 이들 대상으로 민족교육에 대한과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학교의 시설 및 수업교재, 의식 등이 현재 민족학교의 실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정부가 민족학교 시설 정비, 수업교재의 개발, 민족학교에 대한 새로운 의식 정립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송기찬(2012)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학교의 디아스포라적 민족학교의 출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민족학교의 위기론에 대한 대안점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학교는 구성원들(학부모, 학생,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관심제고, 시대 흐름에 따른 시설개선 및 수업자료의 지속적 개발, 한국인의 조선학교에 대한 의식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모국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금이나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ww.kci.go.kr

【参考文献】

김경근외(2005)『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집문당.
김경근외(2006)『재외한인 민족교육관』북코리아.
김정숙외(2008)『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북코리아.
김인덕(2006)「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운동에 대한 연구-재일본조선인연맹 제4・5회 전체대회와 한신(阪神)교육투쟁을 중심으로-」,『사림』(26).
김인덕(2008)「1948年 한신(阪神)教育闘爭과 在日朝鮮人 歷史教育: 在日本朝鮮人聯盟의 民族教育運動 戰術과 關聯하여」,『한일민족문제연구』(16).
김인덕(2012)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 『조선역사교재초안』과 『어린이 국사』를 통해」『역사교육연구회』 제121집.
김인덕(2012)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東京朝鮮中學校의 설립 : 『도꾜조선중고급학교10년사』를 중심으로」, 『崇實史學會』 제28집.
정진성 외(2007)『민족학교(조선・한국)・학급 전수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도쿄권의 초중고 민족학교를 중심으로-』(2007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연구),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
송기찬(1999)「민족교육과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德龍(2002)『朝鮮學校の戰後史-1945～1972-』, 社會評論社.
中尾宏(2003)『在日韓國・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明石書店.
朴炳閨(1990)「民族學校教育現況問題点」,『教育白書-民族教育-』在日大韓民國留民團中央本部.
朴三石(1997)『日本のなかの朝鮮學校ー21世紀にはばたく』朝鮮青年社.
宋基燦(2012)『「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岩波書店.
中島智子(1993)「日本の多民族教育と在日韓國・朝鮮人教育」異文化間教育學會,『異文化間教育 7』アカデミア出版.
梁永厚(1980)「大阪における四·二四教育闘爭の覺え書き」(1)『在日朝鮮人史研究』(6).
梁永厚(1980)「大阪における4·24教育闘爭の覺え書き」『在日朝鮮人史研究』(7).
梁永厚(1986)「解放後民族教育の形成」『三千里』(48).

www.kci.go.kr

要旨

本研究の目的は在日コリアン民族學校を對象に民族教育の現況、教育實態などについて質問調査と面接調査を通して民族教育の方向、展望、發展戰略などを模索することにある。

本論文の研究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在日コリアン民族學校に通う學生たちを對象に人口統計學的な頻度分析の結果、日本で韓國語で授業を受けることに對する自負心が高く、韓國人の視線意識、また彼ら自ら母國意識が强いと答えた學生の比率が非常に高かった。

第二に、日本における民族學校の展望と寄与についての分散分析の結果、韓民族として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確立、韓國企業の日本進出時における基地役割、在日コリアン世代間の連帶强化と意思疏通可能性、多文化共生社會における國際社會の理解增進、在日コリアン間の連帶感强化などの順に平均点數が高かった。

第三に、民族學校の先生、學生、父母たちを對象に要因分析の結果、民族教育の問題点として教育内容と興味不足、父母の關心低下、民族學校に對する關心低下、制度的な支援の不備などがあげられた。また學校のハード的な側面では學校施設の整備や多様な授業資料の不足などがあげられた。

事例分析の結果、韓國學校と朝鮮學校の差は次の通りである。

總連係の朝鮮學校は日本で歷史·政治學的な側面で各種學校を固守しながら運營されてきたが、民団系は戰略的に各種學校と一條校に分離して運營されてきたことがわかった。またグローバル時代日本における民族學校の入學學生や民族教育の概念は以前と全く異なっているので時代の流れに沿って新しく整理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結果的にグローバル時代日本で運營されている民族學校は人的構成の刷新、民族教育に對する關心の增進、學校の施設整備や授業教材の開發などに迫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キーワード：民族學校、韓國學校、朝鮮學校、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
在日コリアン、民族教育、總連系、民団系

투　　고：2014. 5. 31
1차 심사：2014. 6. 14
2차 심사：2014. 7. 5

www.kci.go.kr